Overture, Scherzo and Finale, Op. 52

- □□

정보

Robert Schumann: *Overture, Scherzo and Finale*, Op. 52

- 작곡가 : Robert Schumann (1810–1856)
- 작품명 : *Overture, Scherzo and Finale*, Op. 52
- 장르 : 관현악을 위한 3부 작품
- 작곡 · 개정 : 1841년 작곡 , 1845년 재관현악 · 개정
- 초연 : 1841년 12월 6일 , Leipzig Gewandhaus, Ferdinand David 지휘
- 초판 : 1846년 Leipzig, Kistner
- **IMSLP:** https://imslp.org/wiki/Overture,_Scherzo_and_Finale_for_Orchestra,*Op.52* (Schumann,_Robert)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Overture,_Scherzo_and_Finale

로베르트 슈만의 *Overture, Scherzo and Finale* Op. 52는 느린 악장을 두지 않은 세 부분의 관현악 작품이다 . 1841년에 쓰기 시작해 1845년 관현악을 다시 다듬었으며 , `Andante con moto–Allegro`의 서곡 , `Vivo` 스케르초 , `Allegro molto vivace` 피날레가 이어진다 . 약 17~20분 동안 E단조의 느린 시작이 E장조의 빠른 주부로 열리고 , C♯단조 스케르초와 D♭장조 트리오를 거쳐 대위적인 피날레로 나아간다 . 세 부분은 각각 독립적으로 연주할 수 있으면서도 교향곡에 가까운 긴 호흡을 한 작품 안에 만든다 .

개요

슈만은 이 곡을 구상하면서 `Suite`, `symphoniette`, `symphony`라는 이름을 번갈아 사용했다 . 현재의 제목은 1845년 재관현악과 개정 뒤에 정착했으며 , 1846년 Leipzig의 Kistner에서 출판되었다 . Johannes Verhulst에게 헌정된 초판은 서곡 · 스케르초 · 피날레를 하나의 관현악 작품으로 묶는다 .

느린 중간 악장이 없다는 점이 네 악장 교향곡과 가장 뚜렷하게 다른 부분이다 . 대신 첫 부분의 느린 서주와 빠른 주부 , 스케르초의 단조와 장조 트리오 , 피날레의 빠른 대위적 진행이 서로 다른 속도와 색채를 연결한다 . 슈만은 교향곡의 외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 세 개의 제목이 있는 부분에 긴장과 이완의 흐름을 배치했다 .

출판 정보와 판본

1846년 Kistner 출판사 초판 1887년 Clara Schumann 편집으로 19세기 말 Breitkopf & Härtel 판본이 표준이 되었다. 1909년 Liszt-Stiftung 판본 등 여러 판본이 있으며 현대에는 Sonja Gerlach가 편집한 *Robert Schumann New Edition of Complete Works* 의 5권으로 출판되었고, Schott사 등 여러 출판사에서 20세기 판본이 출판되었다.

이후 Clara Schumann 의 , 이후 여러 편집자들 의 의 여러 의 의 여러 의 여러 . 여러 의 의 여러 의 여러 여러 의 여러 의 .

구성 및 형식

전체 약 17~20분이 소요된다. 여러 , 여러 의 의 의 여러 의 여러 , Sawallisch의 여러 20세 여러 여러 .

악기

- 목관 :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 금관 : 호른 2, 트럼펫 2, 트롬본 3(알토 및 `ad libitum` 테너)
- 타악기 : 팀파니
- 현악 : 제 1바이올린 , 제 2바이올린 , 비올라 , 첼로 , 더블베이스

또한 전체 곡 에서 ·여러 의 여러 여러 , 곡 여러 의 Finale의 의 여러 여러 . 여러 여러 여러 여러 여러 . 여러 여러 여러 의 여러 곡 여러 여러 .

곡 구조 및 분석

I. `Andante con moto – Allegro`: E장조

도입부 E장조

전체 E장조 `Andante con moto`의 여러 . 또 여러 여러 여러 여러 의 의 곡 `Allegro`의 E장조 여러 , 또 의 여러 의 여러 . 또 여러 의 여러 여러 곡 의 여러 여러 의 여러 여러 여러 의 여러 .

또 여러 여러 여러 여러 여러 . 여러 여러 여러 의 곡 E장조 의 의 의 여러 , 여러 여러 여러 여러 의 여러 여러 곡 의 의 .

II. Scherzo. Vivo – Trio: 단조의 질주와

장조의 쉼

스케르초는 Vivo 의 빠른 속도로 C♯단조의 리듬을 밀어붙인다 . 점음형과 6/8박자의 탄력이 짧은 악구를 계속 앞으로 보내며, 첫 부분의 장중한 호흡을 날렵한 움직임으로 바꾼다. 트리오는 D♭장조와 2/4박자로 옮겨 가며 선율을 넓히고, 이완된 구간 뒤에 스케르초가 돌아온다.

트리오가 다시 나타날 때마다 장조의 부드러운 선율과 스케르초의 단조 리듬이 맞선다. 빠른 외곽부와 잠시 넓어지는 중간부의 대비가 세 부분 가운데 유일한 춤곡 성격의 악장을 만든다.

III. Finale. Allegro molto vivace: 대위적 추진력

피날레 Allegro molto vivace 는 쉼 없이 나아가는 빠른 진행으로 시작한다. 여러 성부가 짧은 동기를 받아 이어 가는 푸가토 성격이 나타나고, 관악과 현악이 주제를 교대로 밀어 올리며 종결을 향한다. Jacksonville Symphony의 프로그램 노트가 말하는 푸가적 진행은 엄격한 푸가 전체보다, 주제가 겹쳐 들어오는 대위적 추진력을 가리킨다.

서곡에서 만들어진 밝은 에너지가 피날레의 속도와 결합하면서 작품은 힘 있게 끝난다. 느린 중간 악장이 없어도, 서곡의 서주와 스케르초 트리오가 남긴 대비가 마지막의 빠른 진행에 깊이를 더한다.

장르와 제목의 변천
슈만의 편지와 메모에서 Suite 와 symphoniette 가 번갈아 등장한 것은 세 부분의 성격이 작곡 과정에서 계속 조정되었음을 보여 준다. 1845년 개정 뒤의 Overture, Scherzo and Finale라는 제목은 서곡 ·스케르초 · 피날레를 각각 독립적인 장르명으로 제시하면서도 , 한 악기 편성 안에서 연주하도록 묶는다. 오늘날에는 느린 악장이 없는 교향곡적 관현악 작품, 또는 세 부분으로 된 모음곡에 가까운 곡으로 소개된다.

이 분류의 유동성은 음악의 진행에도 드러난다. 서곡은 소나타적인 긴장과 조성 전환을 사용하고, 스케르초는 전통적인 트리오를 두며, 피날레는 대위적인 종결을 택한다. 어느 한 장르의 규칙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세
부분이 서로 다른 기능을 나누어 갖는 작품으로 보면 제목의 변화와 음악의 형태가 함께 이해된다.

초연과 수용
초연은 1841년 12월 6일 Leipzig의 Gewandhaus에서 Ferdinand David의 지휘로 열렸다. 1846년 Kistner 초판과 이후의 Clara Schumann 편집판은 작품을 슈만의 교향곡들과 나란히 유통시켰지만 , 세 부분과 느린 악장 부재라는 특징은 별도의 레퍼토리 성격을 유지하게 했다.

Los Angeles Philharmonic과 Jacksonville Symphony의 프로그램 노트는 Op. 52를 슈만이 교향곡의
범위를 시험한 작품으로 설명한다. MusicWeb International의 Terry Barfoot은 Wolfgang Sawallisch와 Dresden Staatskapelle의 1992년 EMI 녹음을 다루며, 20분 이내의 짧은 길이 속에서도 교향곡적인 방향과 리듬의 활력이 살아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특정 녹음에 대한 비평이면서 작품이 교향곡적 호흡을 지닌다는
수용의 한 사례다.

Sir John Eliot Gardiner와 London Symphony Orchestra는 2018년 3월 Barbican에서 작품을 녹음했고, LSO Live가 2020년에 발매했다. 레이블 해설은 우아하고 섬세한 서곡이 폭풍성 스케르초, 서정적인 트리오, 빠른 푸가토 피날레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서곡 ·스케르초 ·피날레를 한 흐름으로 묶는 현대 연주의 한 관점을 보여 주는 기록이다.

주요 레코딩

Wolfgang Sawallisch / Dresden Staatskapelle (EMI Classics, 1992년 녹음): Terry Barfoot은 이 녹음을 20분 이내의 생기와 분명한 교향곡적 방향을 지닌 연주로 평가한다. 리듬의
활동성과 세 부분 사이의 연결을 중심에 둔 해석이다.
Sir John Eliot Gardiner / London Symphony Orchestra (LSO Live, 2018년 녹음
·2020년 발매): 서곡의 섬세한 시작, 스케르초의 거센 움직임, 트리오의 서정성, 피날레의 fugato
를 한 흐름으로 제시한 녹음이다.

주요 자료

IMSLP, Overture, Scherzo and Finale for Orchestra, Op. 52: 1841년 작곡 ·1845년 재관현악,
초연 ·출판 ·헌정, 편성, 악장별 tempo와 판본 목록.
Los Angeles Philharmonic, John Henken 프로그램 노트: 1841년 작곡 과정, Suite ·
symphoniette 구상, 느린 악장이 없는 교향곡적 작품과 세 부분의 조성.
Schott Music, Overture, Scherzo and Finale: 작품의 장르 분류, Sonja Gerlach 편집 현대판과
20분의 표기 시간.
Jacksonville Symphony, Caroline Havens 프로그램 노트: 소나타적 서곡, 반복 리듬과 트리오, 피날레의 대위적 진행에 관한 해설.
MusicWeb International, Terry Barfoot의 Sawallisch 녹음 평론: 1992년 Dresden 녹음 정보와 작품의 교향곡적 방향 ·리듬 활력에 관한 비평.
LSO Live, Schumann: Overture, Scherzo & Finale: Gardiner와 London Symphony Orchestra 의 2018년 녹음 ·2020년 발매, 레이블의 악장별 음향 설명.